

# 세진전자(주)

## PC용 키보드 만들기 25년! 기술과 품질로 IMF극복한다

**우** 리나라 수출산업의 진원지인 서울 구로동의 한국수출산업공단!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유통, 출판, 물류 회사들이 하나 둘 늘면서 그 모습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이런 주변 환경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예나 다름없이 활기 차게 수출 제품 생산에 여념이 없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번 회원사 탐방은 우리나라의 컴퓨터 산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랜 기간의 KNOW-HOW를 축적하여 세계적인 키보드 메이커로 성장한 세진전자(대표이사 이상영)를 방문해 보았다.

이 회사는 OA기기, PC란 말이 생소할 때인 70년대 초(72.12) 키보드와 스위치, 문자 표시관을 주 생산 품목으로 한국수출산업공단 제2단지(현 금천구 가산동)에 부지 4,300평 건평 3,300평의 공장을 건립, 세진전자를 창립하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이 회사 제품을 써 줄만한 곳이 전무한 상태여서 전량 일본(FUTABA 사)을 통하여 수출 했다고 한다.

“수출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며 세계 제일의 부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봉사한다.”는 회사의 경영 철학



- 대표자 : 이상영
- 본사 및 공장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9
  - 경기 오산시 가장동 157-1
- TEL : 866-3333/4, 0339)73-5353
- FAX : 864-3375, 0339)72-0589
- 생산품목 : 키보드, 디스플레이부, 스위치, 자동차부품, 모터, 마우스

을 바탕으로 전 사원이 수출품 생산에 전력한 결과 생산 개시 당해 연도에 1백만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 저력을 과시, 정부로부터 수출공로 포상(73.11.30)을 받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그로부터 4반세기(25년), 이 회사는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경쟁제품의 출현, 사회 혼란등을 수 없이 겪으면서도 오직 외길, 키보드와 관련 부품의 수출에만 전념 한 결과 현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 분야에서는 세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세진의 브랜드가 유명해 지게 되었다. 지금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세진 키보드와 마우스 이외에, 형광 문자 표시관, 자동차용 스위치, 산업용 스위치, VCR모-타, OA기기 및 가전기기용 조작 패널(복사기, FAX, 보일러, 전자레인지)등으로 국내외 굴지의 메이커 들에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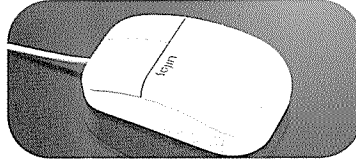
서울과 오산에 2개의 공장을 갖고 있으며 450여명의 종업원에 자본금 50억원, 올해 연간 매출 목표를 1억\$로 잡고 전 임직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었으며 이 회사 생산품의 60% 이상이 수출 또는 수출 관련 제품에 공급되고 있어서 수출 전문 회사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다. 특히 이 회사의 주력 품목인 키보드는 다년간 세계시장 4~5%, 국내시장 65%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왔으며 최근 개발한 무선 키보드는 세계시장의 85%를 넘게 공급하고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었다.

이 회사의 오산 스위치 공장은 동종스위치 공장으로서 세계 최대인 연간 18,000만개를 만들수 있는 CAPA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의 세계적인 경기 하락으로 다소 가동



◀ SEJIN WIRELESS KEYBOARD

▼ SEJIN MOUSE



율이 떨어지긴 했으나 첨단 자동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한때 우리나라에 오는 해외 연수생들의 견학 코스로 활용 되기도 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세계적인 키보드 메이커로 성장한 것은 경영진의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 의욕과 우수 인력 육성,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에서 그원인을 찾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일반 중소기업과는 달리 이 회사는 연구 개발 인원이 전체 종업원의 15%를 넘고 있으며 매출의 10%정도를 개발비에 투자 하므로서 기술력이 동종 업종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회사는 매달 수종의 키보드를 개발해 상품화 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상품 라이프가 짧은 컴퓨터 주변기기의 판매 특성에 따라 이 회사는 설계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이 회사는 생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위한 신뢰성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센터에서는 자동차 스위치와 같이 인명과 재산에 관련되는 부품은 무결점의 추구를 키보드는 분당 300타의 속도에서 오타 발생 없이 2,000만회의 수명을 유지하는 고 신뢰의 제품을 마우스는 마우스 볼이 200km를 주행해도 정상 동작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각가지 신뢰성 실험 설비를 풀 가동 실험에 여념이 없었다.

그 결과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키보드와 마우스 전 제품에 대하여 ISO-9001 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UL, CSA, FCC등 미주지역, TUV, VDE, FTZ등 EU 지역, CCIR등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의 안전 규격을 취득하고 있었다.

최근 경제 후발국들이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 산업에 뛰어들어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세계 PC시장에서

무차별 덤핑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IMF사태까지 겹쳐 정보 산업의 기간이흔들리고 있는 와중에도 세진전자는 주력 제품인 키보드가 이 분야의 월등한 기술력과 창립 초기부터 다져온 수출 기반을 중심으로 내수 시장의 부진을 해외 수출 부문에서 매워 주고 있어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면 올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구미 지역에서 멀티미디어 관련제품과 양방향 통신, Cable TV, PC인터넷 이용자가 확산되면 이들 제품에 장착이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무선 키보드에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기대를 걸 수 있을 듯 했다.

그렇지만 후발 공업국의 추격과 덤핑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 하기위한 원가 절감, 기능과 품질향상에 창의적인 IDEA를 계속 개발 해야만 세계 정상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수출만이 살길”인 우리 경제 현실에서 세진전자와 같이 수출에 전력하는 회사가 수출에 보다 전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시책이 전개되어야 겠다고 생각하며, 세진전자를 나셨다.

